

일주문



천태종 단양다문화가족지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3일 단양경찰서와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단양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에 나섰다.



진각종 진기 63년 추기스승강공개최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21~22일 1박 2일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각종 진기 63년 추기스승강공을 개최한다. (02)913-0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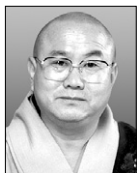
인드라망, 제2차 화엄광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17일 오후 3시부터 1박2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제2차 화엄광장을 개최한다. (02)576-1886



제87차 정기월례학술대회개최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9월 26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간화선의 원리와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제87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꽃마을 행복한 노인 사진공모전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0월 5일까지 '행복한 노인 · 해피시니어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접수받는다. (031)898-1498



법타 스님, 대불련 시상강좌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9월 30일 경북대 제2합동강의실에서 대불련 대구·경북지구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강연을 펼친다.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0월 1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환경운동 10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0-1654



민추본 평화통일사진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루'에서 '제2회 평화통일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02)720-0631



오대산 불교문화추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0월 16~18일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지역 사찰에서 불교문화추진을 개최한다. (033)339-6800



철장사 여사 박문수 전국백일장
안성 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10월 10일 경내에서 '제1회 철장사 여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을 개최한다. (02)788-2028

청와대불자회장
22일 총무원장 예방

12대 청와대불자회(이하 청불회) 회장으로 임명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9월 22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재완 청불회 회장은 "전 회장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청불회 회원들의 도움과,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차분하게 열심히 중책을 수행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작고하신 선친을 사찰에 모시고, 고시 시험 준비를 할 때 1년 여를 사찰에서 기거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박회장의 법명은 '금산(鎭山)'으로 작년에 지관 스님이 지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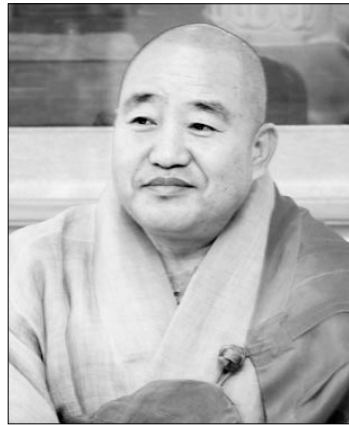
박 회장은 "최근 정부와 불교계 사이에 벽이 많이 낮아진 느낌이 있지만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스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의견을 정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교계 "10.27법난 사료관 건립문제 등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원만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호남불교 중흥 위해 최선”

원행 스님 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 재임



원행 스님.

“불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호남불교로 가꿔 가겠습니다.”
조계종 제17 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로 재임명된 원행 스님은 9월 22일 총무원 4층에서 열린 임명식 후 “호남불교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금산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호남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본말사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전북불교의 대표 사찰인 금산사가 호남불교 중흥에 앞장서도록 열심히 소임을 살겠다”고 말했다.

금산사는 현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수련공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왜건에 의해 소실된 4백년의 세월을 거슬러 내린 하안거에는 '화림선원(花林, 華林)'이 개원 예정이며, 금산사에서 활약한 임진왜란 3대 승병왕 '처용관'도 300평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또 호남불자의 장애복지를 위해 수목장과 납골당 등 공원묘지 건립불사와 전주 불교방송국 개국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불교방송국도 없다”며 “수목장·납골당 방식의 공원묘지 건립과 전주불교방송 개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행 스님은 호남불교계의 화합과 단결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호남불교 중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남지역 4개 본사와 전북 지역 2개 본사는 매달 첫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여수 엑스포 불교계 동참과 북한 북복지 운동 등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북지역 지장도량인 선운사와 더불어 미륵도량 금산사는 스토리를 가지고 불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륵도량으로서, 유식사상 근본도량으로서 확립 설립과 세미나 개최 등 사상배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인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원행 스님은 “공식 출마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출마한다면 문중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8회 행원문화상
24일 시상식 개최



주영은 이사장(오른쪽)이 백도수 연구원(왼쪽)에게 역경상을 시상하는 모습.

불교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은)이 9월 24일 제 18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원문화상은 역경상 부문에 금강대학교 백도수 연구원, 예술상 부문에는 LMB싱어즈 중앙(단장 황영선)이 수상했다. 이번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이유로 백도수연구원은 산스크리트, 배열리어에 능통해 30여년간 등 불교 학문 정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이 인정됐으며, 예술상을 수상한 LMB싱어즈는 수 백회에 달하는 사찰과 불교계의 주요행사에서 음성공양 및 환이들기 자선음악회 등 불교음악을 통한 포교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영은 이사장은 이번 18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에 대해 “이처럼 훌륭한 수상자를 발굴해 시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불교문화의 창달과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제1회 불교교리경시대회 수상자 발표
대상에 차민성 이재선 서정원 수상



왼쪽부터 차민성, 이재선, 서정원 학생.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대상에 이재선(곡란중, 한마음선원), 차민성(동일초, 화계사 어린이회), 서정원(동대부고) 학생이 선정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수상자가 지난 9월 22일 발표했다.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최소연(성포중, 한마음선원), 박리해(행남초), 안소연(오남초, 봉선사, 임혁(광동중), 이경민(동대부속급산고), 장혜경(서울과학교) 학생 6명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에는 박지수(은사 파라미터) 학생 등 9명이 뽑혔다.

장려상은 김태우(민락초, 불광사) 학생 등 30명, 입상은 임민정(한철초) 학생 등 102명이다. 특별상에는 김지연(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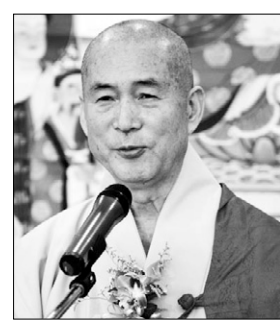
부여중), 이기소(진주지계고), 김혜정(경남정보통신고), 김장협(화중초), 신지혜(해남중) 학생이 선정됐다.

최우수단체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동대부속여고, 동국대 이사장상에는 청담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단체상인 포교원장상에는 동대부속급산중, 불교신문사장상에는 보문중학교,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장상에는 순천 급당절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대회에서는 지체장애인으로 응시한 홍현승(자운고, 화계사)군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9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
법진 스님, 태고종 서울 남부종무원장 취임



법진 스님.

태고종 강서, 양천, 관악, 금천 등 남부지역 7개구 130여 사찰을 관장하는 서울 남부종무원장으로 법진 스님이 취임했다.

법진 스님은 “22일 당선되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오늘 출범하는 남부종무원 등 한국불교 태고종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며 “종무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태고종 남허 스님께 입

실한 바 있다.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은 조계종에서 전통한 스님들의 대우개선과 종단사와 봉원사 문제 등이 얽힌 조계종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단초로도 평가받는다.

법진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도 그동안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총무원 취임에 화합을 우선 하라는 의미로 알고 애종심으로 포교활동 및 중도 신생활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자인 인공 스님을 비롯해 각 부원장 스님, 동문수학인 조계종 불암사회주 일면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임야·임상도 전달
21일, 산림청 제공

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사찰환경 보호, 사찰수림 보존 및 개발 등 불교계 과제 사업의 필수자료인 사찰산림DB가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9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국 25개 교구본사 소유의 산림 경계 및 수목 자원 등을 담은 '사찰산림 임야경계도'와 '임상도'를 전달했다.

이날 산림청이 제공한 자료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소유 3만 헥타르 경계와 사찰림 수목류 및 수령, 자원분포 등이 담겨 조계종과 산림청이 2010년부터 진행하는 수목정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사찰림 유적조정, 산림자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노덕현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삼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건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자 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판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만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이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 전수 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체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